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고 애 란

2007년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태수

고애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고애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 국문초록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고 애 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¹⁾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4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시내 6개(남중 2, 여중 2, 남녀공학 2)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각 1개 학급씩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남자 341명, 여자 364명 총 7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69부(남 320부, 여 349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dorno 등(1950)이 제안한 9개의 하위요인들에서 얻어진 문항을 한국 상황에 맞는 문항만을 분석하여 민경환(1989)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김종준(2003)이 일부분항을 수정하여 중학생 수준에 맞게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폭력실태 조사는 이춘화와 이경은의 질문자료를 참고하여 도기봉(1998)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를 위해 SPSS for windows 12.0k를 이용하여 단순빈도분석(Simple Frequency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s α 계수), t검증,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할 때 자신의 권위주의 성향도 높다. 이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쳐 권위주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 경험에서는 금품갈취가 가장 많았다.

셋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차이가 있다. 이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자녀가 지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넷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경험이 높다. 이는 부모의 훈육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양식을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학교폭력 경험 간에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 또한 권위주의 성향과 자신의 권위주의 수준을 비롯한 자기 이해의 노력의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가정 내의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자녀의 자긍심을 확대시켜 주기 위하여 가정 환경적 대책 마련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인성개발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및 학교복지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이고 다체계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권위주의 개념과 속성	6
2. 학교폭력 유형과 실태	13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	21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3
1. 연구대상	23
2. 측정도구	24
3. 자료처리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V. 요약, 결론 및 제언	43
1. 요약	43
2. 결론	47
3. 제언	49
참고문헌	50
Abstract	57
부 록	60

표 목 차

<표Ⅱ- 1> 학교폭력의 개념 이해	15
<표Ⅱ- 2> 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최근 5년간)	19
<표Ⅲ-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Ⅲ- 2> 권위주의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Ⅲ- 3> 학교폭력실태 조사의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Ⅳ-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 차이	27
<표Ⅳ-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차이	29
<표Ⅳ-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	30
<표Ⅳ- 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	31
<표Ⅳ- 5>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 폭력 차이	33
<표Ⅳ- 6>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폭력 차이	35
<표Ⅳ- 7>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언어적 폭력 차이	36
<표Ⅳ- 8>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괴롭힘 차이	38
<표Ⅳ- 9>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금품갈취 차이	39
<표Ⅳ-10>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폭력이 난무하며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많은 피해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직접적·간접적인 폭력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학교폭력을 학생들 간의 지나쳐 가는 몸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심각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폭력의 안전지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학교가 폭력에의 노출의 장으로 변질되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김선애, 2003).

종전의 학교폭력은 또래끼리의 폭력적 갈등해소 수준이거나, 조금 심한 경우라면 일부 비행학생들의 일시적 탈선행동 정도로 이해됐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학급당 절반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학급전체가 특정의 학생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학생의 우발적인 살인, 자살 등의 극단적 폭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 대부분이 점점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 뚜렷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친구를 폭행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순간 쾌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07년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4월 현재 자진신고 한 학생이 1,236명, 가해학생 2,337명을 단속하였고 폭력서클 41개를 해체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다. 또한 가·피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가해학생은 남학생이 64.2%, 여학생이 35.8%였으며, 중학생이 전체 56.7%를 차지하였고 이중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이 12.3%였다고 한다. 피해학생은 남학생이 68%, 여학생이 32%였고 중학생이 전체 66.3%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적이 있다는 학생이 12.8%나 되었으며 이중

자살시도를 한 학생이 1.1%라고 보고하고 있다(<http://www.police.go.kr>).

이러한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도덕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폭행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자신감을 약화하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함(윤덕중, 1997)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분노와 공격성, 폭력 행동의 학습으로 인해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상대로 또 다른 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Olweus(1993)에 따르면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23세의 성인들의 경우 다른 일반 성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법적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는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과 원인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들로는 개인·성격,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요인들이 있다. 이중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 환경요인(이혜원, 1992; 윤소현, 1993; 임영식, 1998; 노호은, 2001)으로 가정은 자녀들에게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서 지적 및 비지적인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행동특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평소 자녀에게 대하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행동양식을 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떠한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요인이 크게 좌우된다.

이처럼 가정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으며(이혜원, 1992; 윤소현, 1993; 김동일, 1996; 노호은, 2001; 유지향, 2002), 그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아래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엄덕이, 1986; 민경환, 1989; 정은영, 1996; 황혜정, 1997; 유지향, 2002; 김종준, 2003)를 통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의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낮은 자기 통제력의 근원이 잘못된 자녀양육에 있다고 보면서 부모의 자녀양육방법이 자녀의 비행, 범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노충래·이신옥(2003)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부정적인 양육태도 경험은 청소년들의 심리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출, 학교중퇴, 비행, 학교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이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게 되어 마침내 학교나 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문제의 양상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김선옥, 1985). 이러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중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성격적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권위주의 성향은 선행연구(Baumrind, 1969;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Russell & Russell, 1996; 황연정, 1999)를 통해 자녀의 정서와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격 각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볼 수 있어 부모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격 성향에 따라 자녀가 어떻게 영향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규철(2003)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에 부적응을 초래하여 자녀의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주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김명자, 2001; 박영신, 김의철, 2001; 이장현, 우룡, 2001; 김정옥, 박경규, 2002; 박경아, 2002; 김선애, 2003; 고성혜, 2005), 집단 따돌림의 실태(이창희, 2000; 최은숙, 2000; 박정은, 2002; 이은정, 2002)와 같이 학교폭력실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가해·피해)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 폭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폭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언어적 폭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괴롭힘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5.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금품갈취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와 학교폭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의 기본관점, 방향설정, 개념정의를 위한 기초로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권위주의의 개념과 속성

1) 권위주의의 개념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사회, 어느 조직체에 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 성향으로서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권위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권위(authority)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권위는 라틴어의 'Auctoritas'에서 유래하고, Aucto(창시자·창조자·선구자 등)의 활동 또는 재산에 기초한 개인적인 영향력(personal influence)을 의미한다(김호진, 1990).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과 우세',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또는 그러한 위신을 가진 사람'(우리말 큰사전, 1994)을 뜻한다.

Fromm(1942)은 권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사람으로 보는 상호인간관계로 정의하고, 합리적 권위(rational authority)와 금지적 권위(inhibiting authority)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합리적 권위란 종속된 사람을 '돕기'위한 권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권위와 권위종속자간에 평등을 전제하면서 자발적 복종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금지적 권위는 권위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하기'위한 권위로 근본적으로 권위와 권위종속자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맹목적

복종을 가정하고 있다(정권상, 1996, 재인용).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반민주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권위의 개념 즉 권위주의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권위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Horkheimer가 주도하고 Adorno와 그의 연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권위주의적 성격(The Authoritarian Personality)」이라는 저술일 것이다(민경환, 1989). Adorno(1950)는 Fromm의 사도-매저키즘(sado-masochism)과 Maslow의 권위주의 성격구조에 대한 재개념에 영향받아 인종적 편견에 잠재하는 권위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최명구, 1994, 재인용). Fromm(1942)은 권위주의를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여 그 개인적 자아가 갖지 못한 힘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에 자아를 융화시키는 것이라 하였고(김영하, 1988, 재인용), Maslow(1943)는 본질적으로 힘에 대한 강력한 추구로 이때 힘은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권력이라고 하였다(황연정, 1999, 재인용).

특히 Adorno(1950) 등은 권위주의적 행태는 권위주의적 성격에 기인하며, 권위주의적 인간형은 일반적으로 약자에게는 군림적인 행태를 취하고 강자에게는 맹종하는 양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일 경우 그 사회의 위계질서는 상하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일원구조로 엄격하게 서열화 된 수직적인 계서체계로 편제된다고 밝히고 있다(정권상, 1996, 재인용).

이는 권위주의를 지배-복종관계(domination submission relationships)로서의 계층관계(hierarchical relations)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학자의 연구에서는 남의 다른 의견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을 늘 지배하려고 하며, 후배나 연하자가 늘 자기에게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권위주의라 하였고(백완기, 1982), 또한 권력자나 상급자에게는 전인적으로 복종하고 아랫사람들로부터는 그에 버금가는 존대나 복종을 기대하는 행동습성을 위시하여 권력층의 엘리트의식이나 입신출세주의와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관료적 가치관으로 연결되는 행동유형을 권위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한승조, 1976). 이에 조석준(1992)은 인간관계를 수직적 관계에 놓고 규제하려는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Haythorn(1956)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에 복종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하사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신분계층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권위주의라 하며(전득환, 1994, 재인용), 지배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복종의 측면은 전혀 무시하였다.

이에 반해 Allport는 권위주의를 지배-복종관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반민주적 성향 또는 잠재적 파시즘 성향이라고 보았으며 불안, 도그마티즘, 정신적 계층성, 경직성, 협의성, 편협성 및 적대 감정의 복합물이라고 정의하였다(Dillehay, 1978).

지금까지 권위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규정을 살펴 보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제각기 상이하지만 어느 학설이나 다 같이 포함되는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권위주의란 지배-복종관계나 우열관계에 기초를 둔 계층적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을 등급화 시키려 하는 태도이다(김재철, 1986). 즉 권위주의는 우열 및 강자의 과잉일반화로 인해 인간관계를 우열 및 강자에 바탕을 둔 계층적 관계로 파악하며, 강자에게는 무조건적이며 피학적인 복종을 하고, 약자에게는 마구 권위를 행사하여 그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가학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원적 가치척도에 따른 경직성과 강한 권력 추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윤태림, 1986).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권위주의는 일반적으로 계층적 의식구조에 바탕을 둔 상위자의 자의적 지배와 하위자의 무비판적 복종을 요구하는 성향으로 오늘날 권위주의적이란 반민주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 및 행동에 기초한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의 없이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2) 권위주의의 형성배경

위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권위주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성격 중의 하나로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식구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유교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됐으며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보아 군(君), 부

(父), 부(夫)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였다(전득환, 1994).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효사상과 가부장제는 유교문화의 소산으로 부모가 언제나 자녀의 우위에 있음으로써 자녀에 대해 지배적인 권위를 행사하여 명령을 하고 자녀는 이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이상적인 행동방식으로 여기는 것을 효사상이라 하였고(김대석, 1984), 가부장제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원 전체를 통제하고,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며 집을 대표하기 위해 내세웠던 서열 중심적 사상(박혜인 외, 1993)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향이 잠재되어져 있을 뿐더러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한국인의 권위주의 성격을 조장시키는 1차적 요인으로 보았다(백완기, 1982). 이렇듯 권위주의를 조장, 강화시킨 결정적 요인을 유교적 전통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윤태림(1986)은 유교주의가 권위를 앞세우고 복종에 대한 질서를 요구하며, 지배자에 대한 반항은 그것이 국가이든 부모·형제든 간에 안 될 것으로 가르침에 따라 권위주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권위주의가 통용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권위주의에 굴종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해동(1978)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가부장 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연원한 것으로써 사회화과정에서 가족간의 서열과 가부장의 권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유교사상의 영향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수난을 많이 당했던 문화사적인 영향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여 X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초래하게 되었다(권기성, 1981). 특히 Triandis(1995)에 의하면 한국과 같은 전통사회에서는 관계나 지위에 따른 상하 또는 우열로 연계되어 상위자 또는 상급자의 잘못된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도 수용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로 간주되어 왔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의 형성은 필수불가결한 성격중의 하나이며 지배와 복종의 문화 속에서 파생된 사회관계와 가족관계 등을 배경으로 오늘날에도 대체로 모든 국민이 행동의 준거기준이 되고 있다(김운태, 1982)는 것을 알 수 있다.

3) 권위주의의 속성

지금까지 권위주의 개념과 형성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권위주의는 인간 본래의 심리적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대인관계를 지배·복종의 계층적 관계로 인지하며, 집단관계에 있어 과별의식이 강한 반민주적 성향(정권상, 1996)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갖고 있는 성향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권위주의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slow(1943)는 권위주의 속성으로서 계층적 성향, 우열의 일반화, 권위욕구, 적의, 증오, 편견, 외부적 판단, 일원적 가치척도의 중시, 친절의 허약성으로의 동일성, 인간을 수단시하는 성향, 새도-매저키즘적 성향,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성향, 비의식과 갈망 및 책임회피 등을 들고 있다(김영하, 1988, 재인용).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Sanford(1950)등은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 등을 권위주의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전득환, 1994, 재인용). 특히 Adorno(1950) 등은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고 기존의 권위에 무조건 아동이 동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 아동들은 좌절을 많이 겪게 되어 이러한 좌절에 의해 공격성향이 발생하고 자신들의 적개심, 공격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부정적인 편견을 갖는다고 하였다(서장혁, 2001, 재인용). 이에 민경환(1989)은 권위주의 성격을 소지한 사람은 편견에 빠지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권위주의적 성격소지자에 비해 고정관념에 근거한 집단 도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권위주의 성격소지자는 한정적 자기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회 통념적인 집단 구분 속에 자기와 타인을 고착시켜 놓는 병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박수애(1998)와 송관재 등(1999)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집단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생성한 여러 집단들에 대한 편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약자들에 대해 더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술한 학자들의 견해에서 권위주의 속성으로서 지배·복종성, 불안

감, 위기의식, 적개심, 경직한 마음상태, 입신출세주의, 무력감, 엘리트의식, 부귀영화 중시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영하, 19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위주의를 특징 지워주는 속성들은 다양하며 이러한 권위주의의 속성을 종합해 보면, 권위주의적 인간은 모든 사람들을 수직선상에서 서열을 매겨 놓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Adorno 등이 제시한 9가지 속성들은 오늘까지도 권위주의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인용되고 있다(윤우곤, 197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Adorno(1950)등의 제안한 9가지 권위주의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전득환, 1994, 재인용).

① 인습주의(conventionalism) : 전통적 가치에 대해 완고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인습적인 중산층 가치체계에 철저히 젖어 있는 경향을 말한다.

②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 내집단의 권위에 대해 복종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이상화된 도덕적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국가나 민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의 감수, 인간의 우열구분, 카리스마적 지배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 부모·노인 등의 연장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존경, 다수인의 의사에 동조하는 의식, 정부시책에 대한 무비판적 순응, 고위관료 및 교사 등에 대한 존경심, 정치적 무관심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일어난다.

③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 전통적 가치들을 어긴 사람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싫어하고 처벌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과오에 대한 보복, 전통문화의 가치관 존중, 사형제도, 법률의 엄격한 집행, 강력한 치안유지, 탈세자의 처벌강화, 스파르타식 교육제도, 학교의 체벌제도, 위법자 및 불량자의 엄격한 처벌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④ 반 내성주의(anti-intrapection) : 주관적이고 상상적이고 유연한 마음자세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즉 자신의 감정·정서·충동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⑤ 미신과 고정관념(superstition and stereotypy)적 사고 : 개인의 운명이 신비

적인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향과 어떤 사물을 고정관념에 의해 파악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길흉화복에 대한 무복성, 운명결정론 또는 운명의 인간 지배성, 무복에 의한 치병가능성에 대한 신념, 인간능력의 유한성에 대한 신념, 종교적 내세관, 사람의 행위 또는 사물에 대한 독단적 평가, 엄격하고 절도 있는 생활태도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⑥ 권력과 강인함(power and toughness)에 대한 믿음 : 우열의 차원에 의한 선입견, 권력자와 자신의 동일시, 인습화된 자아의 속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힘과 강인함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을 의미한다.

⑦ 파괴주의와 냉소주의(destructiveness and cynicism) : 인간에 대한 일반화된 적개심과 중상모략 등을 의미한다. 즉 타인에 대한 경계의식, 타인에 대한 경멸적 태도, 타인이 호의를 베풀어도 경계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불신풀조, 정치가 및 기업인에 대한 불신풀조, 정치보다 학문이나 예술을 중시하는 태도, 자연의 위력에 대한 경건성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⑧ 투사성(projectivity) : 세상에는 거칠고 위험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경향을 말하며, 또한 무의식적인 감정적 충동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⑨ 성(sex) : 성적 행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 내지 걱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권위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권위주의는 지배와 복종관계 즉, 상위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복종과 하위자에 대한 강압적인 지배를 요구하는 성향으로 권위주의적 부모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자녀에게 강조하여 자녀의 자아의지를 억제함은 물론 사회적 성장과 심리적 건강에 장애를 주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주의 성격은 부모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반영됨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성격은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폭력 유형과 실태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의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학교생활 과정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폭력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 사이에 많은 폭력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행사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Elliot, Hamberg & Williams, 1998). 폭력의 사전적 용어를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난폭하게 때릴 때 쓰는, 주먹이나 발이나 몽둥이 따위의 수단, 넓은 의미로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나타내기도 하며, 난폭한 힘이나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폭력에 대한 이 같은 정의에 따르자면 학교폭력은 대상이나 형태, 범위,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지만(김미영, 2006),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의도 또는 결과가 함께 다루어지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다.

Roland(1989)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학교폭력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오래 계속되는 폭력으로 실제 상황에서 방어 능력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 하였고, Tattum과 Herbert(1993)는 마음먹고 남을 괴롭히려는 의식적인 욕구로서 상대방을 스트레스로 몰아넣는 것이며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송효섭, 1998, 재인용).

위 개념들은 유형에 따라 정의한 것으로 국내학자들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김형방, 1996)으로 보고 있으며, 오명식(1997)은 학교 내와 학교 인근에서 유목적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일회적 또는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경우라 하였다.

한편 Stephenson과 Smith(1989)는 학교폭력을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으로 나누어 지배적인 사람이 덜 지배적인 사람에게 걱정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걱정을 일으키는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사회적 상호관계의 한 형태로서의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언어적 공격 및 간접적 공격이며, 한 명 이상의 피해자와의 상호관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학교폭력의 장소 및 주체에 따라 Olweus(1994)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한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 쪽에 부정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노출될 때 어떤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개념을 피해자 중심과 학교주변의 폭력까지 포함하여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의미의 폭을 넓히고 있다.

홍금자(1997)는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 밖의 폭력은 금품 갈취나 폭력 조직과의 세력 다툼 등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하더라도 주로 일회적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학교 내 폭력은 안면이 있는 선배나 동료 또는 중퇴자, 복학자 등이 포함된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발생 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정선경(1998)은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일방 혹은 양방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및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각종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차원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 하였다.

2004년 7월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장윤지, 2005).

이렇듯 학교폭력의 개념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유형과 장소 및 주체에 따라 조금의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

<표 II-1> 학교폭력의 개념 이해

구분	폭력의 정의	폭력의 범주	비 고
한국 청소년 개발원	개인의 이익을 파괴 혹은 훼손시키는 일체 의 모든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뿐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 위반 등 심리적인 불 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함.	폭력유형을 협박피해, 폭력서클 가입강요, 금 품갈취, 단독폭행, 집 단폭행, 물건던지기, 친구의 구타, 폭언 등 10가지 유형으로 정함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 적 및 정신적 혹은 재 산적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물리적, 심리적 강제력을 부당하게 악 용하는 행위	학교 내·외에서 학생 들이 개인적이나 집단 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등과 같은 모든 유형 및 무형의 폭력 행위로서 폭행, 금품갈 취 및 협박과 따돌림, 성폭력 등 크고 작은 일체의 폭력행위	학교폭력이란 학생들 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이나 학교 밖에서 일 어나는 폭력이라도 그 것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학교 폭력으로 본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폭력이란 타인에게 해 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 징적 및 심리적 강제, 집단적 따돌림 등 다 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	학교폭력이란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인 생활과정 에서 누군가(동료, 학생, 선배, 아는 사람 및 전 혀 모르는 사람 등)로 부터 당하는 유형 및 무형의 폭력	주로 학교라고 하는 장소적 특성보다는 신 분적 특성을 강조하여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폭력의 정의	폭력의 범주	비 고
기타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혹은 집단적 따돌림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 폭력이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	학교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인간적이고 온정적이며 정상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난폭하고 잔인하며 비정상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 이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료 : 신미현, “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 사회사업적 개입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7.

이상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써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신체적·물리적·심리적 손상과 위해를 가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2) 학교폭력의 유형

최근 청소년 비행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조직화 경향, 집단화 경향, 도시화의 경향, 재범증가의 경향, 성범죄의 격증 경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세계적 공통 현상이며 그 질에 있어서 “조직화”, “악질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경우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조폭범은 매년 격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조폭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박태숙, 2004).

학교폭력의 유형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서기채, 2006).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유형화 할 경우 또래집단과 교직원 등과 같이 신분적 상황에 따라 수평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

며, 둘째, 가해자의 수에 따라 개인적 폭력과 집단적·조직적 폭력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셋째, 폭력행동의 배경이 되는 원인에 따라 실험적 폭력, 사회적 폭력, 성격적 폭력, 신경질적 폭력, 정신병적 폭력, 기질적 폭력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적 행동의 내용적 측면에 따라 집단괴롭힘·따돌림(왕따)·금품갈취, 언어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폭력적 행동의 내용적 측면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Stephenson과 Smith(1989)는 때리기, 차기 등의 직접적인 폭력과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 및 나쁜 소문 퍼뜨리기, 소지품 숨기기 등의 간접적인 폭력으로 학교 폭력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Olweus(1994)도 학교폭력 유형을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직접적 폭력이란 노골적인 공격이고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며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등이다. 신체적 폭력은 멱살잡기, 따귀 때리기의 가벼운 폭행부터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기 등 심각한 폭행이고, 금품갈취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폭력행동이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유 및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성폭행에는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강간, 강제추행이 포함된다. 한편 Tattum과 Herbert(1993)는 주먹이나 무기로서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과 비꼬기 등의 언어적 폭력, 과자나 돈을 빼앗는 강탈 및 특정아동을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따돌리기를 포함한다고 한다.

국내학자의 연구에서는 괴롭힘, 언어적·정신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 금품갈취, 성폭력으로 분류하였고(김준호, 1995), 구본용(1996)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학교폭력을 나누었다. 그리고 정동채(1997)는 금품갈취, 단순폭력, 학업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선경(1998)은 괴롭힘,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심리적 폭력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강동욱(1999)의 연구에서는 학생간의 폭력의 유형을 첫째, 약한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이는 특정한 피해 학생을 배제시키거나 괴롭히고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가혹 행위를 말한다. 둘째, 동조로 피해자가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자까지 가세하여 약한 자의 공격에 참여하게 되는 형태

이다. 셋째, 자기가 속한 집단 세력의 과시, 리더의 지위나 개인적인 힘의 과시를 위해, 대립하는 다른 집단을 자기의 산하에 넣으려 하거나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형태인 자기과시가 있다. 넷째, 자기 또는 집단 구성원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이 있다.

이렇듯 학교폭력 유형은 대체적으로 논리적 기준에 의한 유형화라기보다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적 폭력은 학교폭력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폭력의 대상이 된 학생이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해를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때리기, 구타, 상해, 패싸움, 기물파괴, 흉기소지, 성폭력 및 흉기를 사용한 위협적 행위로 정의한다.

심리적 폭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로 따돌림, 놀림, 조롱, 비웃음, 성적놀림 등으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폭력은 위협, 협박, 욕설, 공연한 시비 등에 관련된 행위로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이다.

괴롭힘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숙제시키기, 심부름하기, 가방 들어주기, 불량씨클이나 폭력조직 가입강요, 컨닝강요 등에 관련된 행위를 일컬어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품갈취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위협하거나 때림으로써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3) 학교폭력의 실태

위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고, 폭력의 형태도 다양하고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을 직위해제하고 5명을 경고조치하는 등 문책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은 5천 808개 학교에 6천 604명으로 집계됐으며, 교육부가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천 659명 등이었다고 한다. 징계받은 학생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천 92명, 고등학생이 2천 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고 한다 (CBS. 2006. 2.10).

최근 경찰청(2006)에서 5년간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수치상 안정적인 추세(전년대비 단속이 8.6%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불량서클의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고 지역 연합까지 구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저연령화 하는 추세라고 발표하였다. <표Ⅱ-2>는 최근 5년간 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이다.

<표Ⅱ-2> 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폭력 씨클수			폭력·갈취		성폭력	
	검거	구속	씨클수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1	28,653	2,722	34	357	90	26,259	1,422	2,037	1,210
2002	28,289	3,778	79	752	88	25,176	2,272	2,361	1,418
2003	11,440	1,106	21	263	44	10,479	679	698	383
2004	7,274	606	22	265	45	6,527	308	482	253
2005	7,899	286	36	411	28	7,319	184	169	74

※ 자료 : 경찰백서, 경찰청, 2006, p226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2006년 상반기(1월~6월) 학교폭력 상담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중학생이 50.3%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초등학생 29.9%, 고등학생 19.8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비율이 5.1% 줄고,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각각 4.8%, 0.3% 늘어난 것으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학교 안이 71%, 학교 밖이 29%로 교내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신체폭행이 29%, 따돌림이 24%, 괴롭힘이 14%, 언어폭력이 12%로 나타났다. 신체폭행이 상담의 내용으로는 툭툭치는 가벼운 신체폭행부터 시작해서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심각한 수준의 폭행까지 다양한 범위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따돌림은 주로 여학생들에게 많이 일어났는데, 식사 같이 안하기 등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따돌림부터 고의적, 의도적으로 전교적, 지역적 왕따가 되게 하는 고등학생 여학생들의 지능적인 따돌림까지 있다고 한다 (<http://www.jikim.net>).

특히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은 2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해 있는 학교·학원 등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것으로(경찰청, 2004),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개념과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 등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자아감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이인재, 2005),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0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학교폭력 현황을 집계한 결과 피해 학생수는 46명, 가해 학생수는 87명으로 분류하였고 가해학생별 폭력 유형(피해학생수)을 보면 신체폭행 65명(3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갈취 17명(15명), 집단괴롭힘 5명(1명)등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폭력 가해 학생수가 42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중생에 의한 학교 폭력은 남학생에 못지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제주일보, 2006. 7. 28).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범죄자나 알코올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Eron, Huesmann, Dubow, Romanoff & Yarmel, 1987; Olweus, 1993)는 점에서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피해학생들의 이러한 경향은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Olweus, 199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성격과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부모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황연정, 1999), 자녀의 성격발달과 사회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중 폭력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aefer(1959)는 지배적이며 통제적인 부모는 대체로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많은 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반항적, 호전적, 불복종적이고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는 순종적·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예의가 바른 대신 반항적이고 투쟁적이고 자학적 행동이 많고, 불안하며, 자립성과 자율성, 창조성이 결여된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순종하는 성격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황연정, 1999, 재인용).

Stanford(1973)는 권위주의의 근원을 양친에 대한 적개심으로 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억압 속에서만 살게 되면 그들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 처리는 자연스러운 길을 밟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되며, 이들의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면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Patterson과 Stouthamer-Loeber(1984)는 부모의 관심과 훈육의 정도는 폭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부모의 자녀행동에 대한 파악과 지지적 상호작용,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와 가족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해결을 가정 교육의 요소로 보고 폭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들 가운데 행동파악이 폭행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한다.

민병근(1992)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아주 낮을 때, 부모와 접촉이 전혀 없거나 적을 때, 청소년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족이 심할 때, 가정에 대한 협동심이 거의 없을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규율이 아주 엄격하고 처벌주의이며 어른 중심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할 때 청소년 자녀의 폭행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권장환(1997)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과보호형, 지배적인 형, 거부적인 형인 경우에 학교폭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훈육 방법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거나 무관심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정서불안, 가치관의 갈등을 형성하여 학교폭력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최경호(200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향성이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부모생존여부, 부모직장여부, 주거지역, 주거형태 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가정요인이 학교의 폭력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서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그 원인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특히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훈육방법 중 권위주의 성향은 학교폭력과 연관 지어 자녀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과의 관련성과 이러한 권위주의 성향이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 6개(남중 2, 여중 2, 남녀공학 2)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각 1개 학급씩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남자 341명, 여자 364명 총 705명에 대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69명(남 320명, 여 34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Ⅲ-1>에서 제시하였다.

<표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별	1학년	230	34.38
	2학년	217	32.44
	3학년	222	33.18
성 별	남학생	320	47.83
	여학생	349	52.17
전 체		669	100.00

연구대상자의 학년을 살펴보면 전체 669명의 응답자 가운데 1학년 230명(34.38%), 2학년 217명(32.44%), 3학년 222명(33.18%)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320명(47.83%), 여학생이 349명(52.1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35문항, 본인의 권위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35문항,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관한 질문 17문항,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질문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위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위성향과 자기 자신의 권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Adorno 등(1950)이 권위주의의 구성요인으로 제안한 9개의 하위요인들(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에서 얻어진 문항들을 한국 상황에 맞는 문항만을 분석하여 민경환(1989)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김종준(2003)이 일부문항을 수정하여 중학생 수준에 맞게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개별 문항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2점) ‘대체로 그랬다’(3점) ‘정말 그랬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민경환의 연구(1989)에서 제시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6이었고, 황연정의 연구(1999)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6, 김종준의 연구(2003)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5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94로 나타났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각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권위주의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인습주의	5	11, 12, 16, 28, 30	0.70
권위주의적 복종	4	10, 14, 29, 32	0.72
권위주의적 공격성	4	2, 6, 17, 35	0.75
반 내성주의	4	1, 13, 26, 33	0.65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4	8, 20, 24, 31	0.75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3	15, 25, 27	0.66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5	3, 4, 9, 19, 34	0.73
투사성	3	7, 21, 22	0.67
성	3	5, 18, 23	0.66
전체	35		0.94

2) 학교폭력실태 조사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춘화와 이경은의 질문자료를 참고하여 도기봉(1998)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학교폭력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신체적 폭력 3문항, 심리적 폭력 3문항, 언어적 폭력 3문항, 괴롭힘 4문항, 금품갈취 4문항으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나누었다.

각 개별 문항에 대한 대답은 '한 번도 없음'(1점) '일년에 한 번 정도'(2점) '일년에 두 세번 정도'(3점) '한 달에 한 번 정도'(4점) '한 달에 두 세 번 이상'(5점) 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도기봉의 연구(1998)에서 설문지 내용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9였으며, 이 설문지를 사용한 김규철의 연구(2003)에서는 0.94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1로 나타났다. <표Ⅲ-3>은 학교폭력실태 조사를 위한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요인이다.

<표Ⅲ-3> 학교폭력실태 조사의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신체적 폭력	3	1, 2, 3	0.71
심리적 폭력	3	4, 5, 6	0.77
언어적 폭력	3	7, 8, 9	0.75
괴롭힘	4	10, 11, 12, 13	0.76
금품갈취	4	14, 15, 16, 17	0.76
전체	17		0.91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for windows 12.0k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빈도분석(Simple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인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을 상 집단(상위 30%)으로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을 하 집단(하위 30%)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하였고,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신의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절차는 첫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둘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가해·피해)이 영향을 검증하였다. 셋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의 차이

가설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 전체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 차이

	구 분	n	M	SD	t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상 집단	217	88.88	11.28	19.36***
	하 집단	207	64.36	14.52	

***: $p < .001$

<표IV-1>에 의하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M=88.88)이 낮은 집단(M=64.36)보다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이 의미 있게 높았다. 또한 t검정한 결과로 볼 때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9.36, p<.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권위주의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녀도 권위주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권위주의적 부모에게서 양육되는 자녀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리더도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엄덕이(1986)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

가설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가해·피해)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에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 경험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M=56.29$)이 낮은 집단($M=49.01$) 보다 의미 있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58, p<.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다고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학교폭력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인 김규철(2003)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권위 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폭력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Ⅳ-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차이

학교폭력 경험	수 준	n	M	SD	t
가해	상 집단	217	28.74	8.81	3.98***
	하 집단	207	25.32	8.87	
피해	상 집단	217	27.55	11.21	3.91***
	하 집단	207	23.69	9.01	
전체	상 집단	217	56.29	16.98	4.58***
	하 집단	207	49.01	15.65	

***: p<.001

학교폭력 가·피해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M=28.74)이 낮은 집단(M=25.32)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3.98, p<.001), 피해경험 또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M=27.55)이 낮은 집단(M=23.6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91, p<.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폭력 가·피해경험이 모두 높아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인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억압, 투사, 공격성, 편견, 호전성, 경직성, 애매함에 대한 불관용성, 적개심, 의혹심, 후퇴심 등의 경향이 높다는 서정숙(1995)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자녀의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높게 인지할 수록 자녀의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

학교폭력 가해경험	수 준	n	M	SD	t
신체적 폭력	상 집단	217	4.83	2.32	1.63
	하 집단	207	4.48	2.17	
심리적 폭력	상 집단	217	6.59	3.11	4.14***
	하 집단	207	5.37	2.94	
언어적 폭력	상 집단	217	6.77	2.94	3.57***
	하 집단	207	5.76	2.86	
괴롭힘	상 집단	217	5.17	1.94	1.48
	하 집단	207	4.88	2.12	
금품갈취	상 집단	217	5.38	2.24	2.91**
	하 집단	207	4.83	1.59	

** : p<.01, *** : p<.001

<표IV-3>를 보면 학교폭력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언어적 폭력(M=6.77)이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폭력(M=6.59), 금품갈취(M=5.38), 괴롭힘(M=5.17), 신체적 폭력(M=4.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하위요인 중에서 언어적 폭력(t=3.57, p<.001), 심리적 폭력(t=4.14, p<.001), 금품갈취(t=2.91, p<.01)는 그 차이를 t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인 박경옥(2005)이 청소년의 지각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맥 하는 것으로, 부모의 태도가 적대적이고 단속적일 때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등 내적갈등이 극대화된다는 Mussen(1979)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 중 언어적 폭력에서 가해경험이 가장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심리적 폭력, 금품갈취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하위요인과의 차이

학교폭력 피해경험	수 준	n	M	SD	t
신체적 폭력	상 집단	217	4.69	2.49	3.14**
	하 집단	207	4.02	1.82	
심리적 폭력	상 집단	217	5.24	3.09	3.69***
	하 집단	207	4.25	2.38	
언어적 폭력	상 집단	217	6.00	3.19	3.18**
	하 집단	207	5.04	3.03	
괴롭힘	상 집단	217	5.25	2.64	2.13*
	하 집단	207	4.79	1.70	
금품갈취	상 집단	217	6.38	3.41	2.65**
	하 집단	207	5.58	2.73	

*: p<.05, **: p<.01, ***: p<.001

<표IV-4>에서 학교폭력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금품갈취(M=6.38)가 가장 높았으며, 언어적 폭력(M=6.00), 괴롭힘(M=5.25), 심리적 폭력(M=5.24), 신체적 폭력(M=4.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하위요인인 신체적 폭력(t=3.14, p<.01), 심리적 폭력(t=3.69, p<.001), 언어적 폭력(t=3.18, p<.001), 괴롭힘(t=2.13, p<.05), 금품갈취(t=2.65, p<.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윤성근(2000)이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이 자녀의 학교폭력 중 강탈피해가 많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하위요인 중 금품갈취 피해경험이 가장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서는 신체적 폭력, 괴롭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해 경험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권위주의적 부모는 부모가 이미 설정한 절대적인 행동 준거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시키고, 통제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의 자아의식을 억제시켜 어떤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는 Baumrind(1969)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피해성향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소와의 차이

가설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상·하)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폭력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 폭력 경험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 폭력 차이

권위주의 하위요인	수 준	n	M	SD	t
인습주의	상 집단	209	9.58	4.04	2.01*
	하 집단	194	8.80	3.68	
권위주의적 복종	상 집단	161	9.54	3.85	1.75
	하 집단	195	8.85	3.62	
권위주의적 공격성	상 집단	156	9.51	3.99	2.08*
	하 집단	209	8.69	3.44	
반 내성주의	상 집단	134	9.53	3.99	1.96
	하 집단	183	8.71	3.45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상 집단	183	9.18	3.71	1.27
	하 집단	262	8.73	3.63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상 집단	187	9.76	4.14	3.14**
	하 집단	206	8.54	3.5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상 집단	181	9.62	3.94	2.14*
	하 집단	168	8.75	3.67	
투사성	상 집단	230	9.19	3.97	1.11
	하 집단	186	8.77	3.66	
성	상 집단	184	8.89	3.54	0.19
	하 집단	172	8.82	3.66	

*: p<.05, **: p<.01

<표Ⅳ-5>에 의하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 인습주의($t=2.01, p<.05$), 권위주의적 공격성($t=2.08, p<.05$),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3.14, p<.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2.14, p<.05$)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 폭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공격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는 자녀의 신체적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공격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폭력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폭력 경험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Ⅳ-6>과 같다.

<표Ⅳ-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 인습주의($t=2.55, p<.05$), 권위주의적 복종($t=3.42, p<.001$), 권위주의적 공격성($t=3.60, p<.001$), 반 내성주의($t=3.03, p<.01$),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4.77, p<.00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5.58, p<.0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4.40, p<.001$), 투사성($t=2.38, p<.05$), 성($t=2.70, p<.01$)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폭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은 심리적 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상의 9가지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IV-6>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폭력 차이**

권위주의 하위요인	수 준	n	M	SD	t
인습주의	상 집단	209	11.11	4.85	2.55*
	하 집단	194	9.90	4.65	
권위주의적 복종	상 집단	161	11.37	4.96	3.42***
	하 집단	195	9.64	4.58	
권위주의적 공격성	상 집단	156	11.46	5.27	3.60***
	하 집단	209	9.59	4.35	
반 내성주의	상 집단	134	11.46	5.38	3.03**
	하 집단	183	9.75	4.25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상 집단	183	11.57	5.25	4.77***
	하 집단	262	9.37	4.06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상 집단	187	11.82	5.21	5.58***
	하 집단	206	9.22	3.84	
과괴주의와 냉소주의	상 집단	181	11.68	5.07	4.40***
	하 집단	168	9.53	4.03	
투사성	상 집단	230	10.98	5.08	2.38*
	하 집단	186	9.83	4.69	
성	상 집단	184	10.89	4.68	2.70**
	하 집단	172	9.59	4.40	

*:p <.05, **: p<.01, ***: p<.001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언어적폭력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언어적 폭력 경험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언어적 폭력 차이

권위주의 하위요인	수 준	n	M	SD	t
인습주의	상 집단	209	12.02	5.21	1.92
	하 집단	194	11.05	4.95	
권위주의적 복종	상 집단	161	12.35	5.16	2.28*
	하 집단	195	11.06	5.40	
권위주의적 공격성	상 집단	156	12.79	5.52	4.00***
	하 집단	209	10.60	4.91	
반 내성주의	상 집단	134	12.58	5.25	3.52***
	하 집단	183	10.63	4.57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상 집단	183	12.58	5.21	3.77***
	하 집단	262	10.71	5.10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상 집단	187	12.83	5.32	4.87***
	하 집단	206	10.39	4.54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상 집단	181	12.67	5.31	3.97***
	하 집단	168	10.54	4.68	
투사성	상 집단	230	11.73	5.10	1.43
	하 집단	186	11.02	4.97	
성	상 집단	184	11.88	4.98	2.10*
	하 집단	172	10.75	5.13	

*: p<.05, ***: p<.001

<표IV-7>를 보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 권위주의적 복종($t=2.28$, $p<.05$), 권위주의적 공격성($t=4.00$, $p<.001$), 반 내성주의($t=3.52$, $p<.001$),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3.77$, $p<.00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4.87$, $p<.0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3.97$, $p<.001$), 성($t=2.10$, $p<.05$)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언어적 폭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성은 자녀의 언어적 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에서 인습주의와 투사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언어적 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괴롭힘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괴롭힘 경험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 권위주의적 복종($t=2.07$, $p<.05$),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2.24$, $p<.05$),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2.14$, $p<.05$)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괴롭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권위주의적 복종,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에서 자녀의 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복종,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성향이 높을수록 괴롭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IV-8>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괴롭힘 차이

권위주의 하위요인	수 준	n	M	SD	t
인습주의	상 집단	209	10.31	3.38	1.21
	하 집단	194	9.86	3.99	
권위주의적 복종	상 집단	161	10.58	3.80	2.07*
	하 집단	195	9.79	3.27	
권위주의적 공격성	상 집단	156	10.04	3.08	0.44
	하 집단	209	9.89	3.40	
반 내성주의	상 집단	134	10.57	4.19	1.94
	하 집단	183	9.74	3.20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상 집단	183	10.44	3.95	2.24*
	하 집단	262	9.66	3.04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상 집단	187	10.52	3.78	2.14*
	하 집단	206	9.72	3.62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상 집단	181	10.43	3.59	1.43
	하 집단	168	9.88	3.60	
투사성	상 집단	230	9.73	3.36	-0.31
	하 집단	186	9.83	3.39	
성	상 집단	184	10.02	3.39	-0.02
	하 집단	172	10.03	3.62	

*: p<.05

5)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금품갈취 차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금품갈취 경험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금품갈취 차이

권위주의 하위요인	수 준	n	M	SD	t
인습주의	상 집단	209	11.59	4.08	2.80**
	하 집단	194	10.49	3.77	
권위주의적 복종	상 집단	161	11.90	4.48	3.21***
	하 집단	195	10.49	3.64	
권위주의적 공격성	상 집단	156	11.39	3.99	2.38*
	하 집단	209	10.45	3.38	
반 내성주의	상 집단	134	11.84	4.35	2.97**
	하 집단	183	10.48	3.56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상 집단	183	11.89	4.66	3.66***
	하 집단	262	10.41	3.4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상 집단	187	11.61	4.40	2.79**
	하 집단	206	10.48	3.52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상 집단	181	11.96	4.54	3.54***
	하 집단	168	10.42	3.54	
투사성	상 집단	230	10.97	3.79	1.77
	하 집단	186	10.33	3.45	
성	상 집단	184	11.12	3.53	0.57
	하 집단	172	10.88	4.23	

*: p<.05, **: p<.01, ***: p<.001

<표IV-9>를 보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 인습주의(t=2.80, p<.01), 권위주의적 복종(t=3.21, p<.01), 권위주의적 공격성(t=2.38, p<.05), 반 내성주의(t=2.97, p<.01),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3.66, p<.00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2.79, p<.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3.54, p<.001$)에서 수준별 차이에 따라 자녀의 금품갈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투사성과 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이 높을 때 자녀의 금품갈취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부모의 투사성과 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자녀의 금품갈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금품갈취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소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자녀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에서 권위주의 하위요인 중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성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괴롭힘에서는 ‘권위주의적 복종’($M=10.58$) 성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고, 금품갈취에서는 ‘파괴주의와 냉소주의’($M=11.96$) 성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험이 높아지며, 부모의 ‘권위주의적 복종’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괴롭힘 경험이 높아지고, 부모의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금품갈취 경험이 높아진다.

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가설 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IV-10>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구 분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인습주의	0.074	0.114**	0.071	0.074	0.122**
권위주의적 복종	0.073	0.152***	0.115**	0.054	0.125**
권위주의적 공격성	0.081*	0.169***	0.142***	0.012	0.095*
반 내성주의	0.088*	0.157***	0.150***	0.062	0.117**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0.056	0.187***	0.156***	0.071	0.160***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0.101**	0.185***	0.171***	0.066	0.106**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0.114**	0.234***	0.202***	0.073	0.171***
투사성	0.048	0.145***	0.074	-0.002	0.073
성	-0.005	0.094*	0.064	0.011	0.026

*: p<.05, **: p<.01, ***: p<.001

<표IV-10>에 의하면 인습주의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폭력($r=.114$, $p<.01$), 금품갈취($r=.12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위주의적 복종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폭력($r=.152$, $p<.001$), 언어적 폭력($r=.115$, $p<.01$), 금품갈취($r=.12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위주의적 공격성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신체적 폭력($r=.081$, $p<.05$), 심리적 폭력($r=.169$, $p<.001$), 언어적 폭력($r=.142$, $p<.001$), 금품갈취($r=.09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 내성주의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신체적 폭력($r=.088$, $p<.05$), 심리적 폭력($r=.157$, $p<.001$), 언어적 폭력($r=.150$, $p<.001$), 금품갈취($r=.117$, $p<.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폭력($r=.187$, $p<.001$), 언어적 폭력($r=.156$, $p<.001$), 금품갈취($r=.16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신체적 폭력($r=.101$, $p<.01$), 심리적 폭력($r=.185$, $p<.001$), 언어적 폭력($r=.171$, $p<.001$), 금품갈취($r=.10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피주의와 냉소주의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신체적 폭력($r=.114$, $p<.01$), 심리적 폭력($r=.234$, $p<.001$), 언어적 폭력($r=.202$, $p<.001$), 금품갈취($r=.17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투사성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폭력($r=.14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 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폭력($r=.09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인 송미숙(2004)의 연구와 박경옥(2005)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많은 학교폭력을 경험한다는 결과와 일맥 하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는 것이었다.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 하위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시내 6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각 1개 학급씩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남자 341명, 여자 364명 총 7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69부(남 320부, 여 349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위성향과 자기 자신의 권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Adrno 등(1950)이 제안한 9개의 하위요인들에서 얻어진 문항들을 한국 상황에 맞는 문항만을 분석하여 민경환(1989)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김종준(2003)이 일부문항을 수정하여 중학생 수준에 맞게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폭력실태 조사는 이춘화와 이경은의 질문자료를 참고하여 도기봉(1998)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SPSS for windows 12.0k를 이용하여 권위주의 성향 점수를 상·하 집단(각 30%)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신의 학교폭력 경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권위주의 성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9.36, p<.001$).

둘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t=4.58, p<.001$), 가해($t=3.98, p<.001$), 피해($t=3.91, p<.001$)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에서는 언어적 폭력(M=6.77)이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폭력(t=4.14, p<.001), 언어적 폭력(t=3.57, p<.001), 금품갈취(t=2.9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에서는 금품갈취(M=6.38)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t=3.14, p<.01), 심리적 폭력(t=3.69, p<.001), 언어적 폭력(t=3.18, p<.01), 괴롭힘(t=2.13, p<.05), 금품갈취(t=2.65, p<.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폭력과의 관계는 인습주의(t=2.01, p<.05), 권위주의적 공격성(t=2.08, p<.05),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3.14, p<.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2.1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폭력과의 관계는 인습주의(t=2.55, p<.05), 권위주의적 복종(t=3.42, p<.001), 권위주의적 공격성(t=3.60, p<.001), 반 내성주의(t=3.03, p<.01),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4.77, p<.00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5.58, p<.0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4.40, p<.001), 투사성(t=2.38, p<.05), 성(t=2.70, p<.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과의 관계는 권위주의적 복종(t=2.28, p<.05), 권위주의적 공격성(t=4.00, p<.001), 반 내성주의(t=3.52, p<.001),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3.77, p<.00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4.87, p<.0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3.97, p<.001), 성(t=2.1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과의 관계는 권위주의적 복종(t=2.07, p<.05),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2.24, p<.05),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2.1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와의 관계는 인습주의(t=2.80, p<.01), 권위주의적 복종(t=3.21, p<.01), 권위주의적 공격성(t=2.38, p<.05), 반 내성주의(t=2.97, p<.01),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t=3.66, p<.001),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t=2.79, p<.01), 파괴주의와 냉소주의(t=3.54,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습주의에서는 심리적 폭력($r=.114, p<.01$), 금품갈취($r=.12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위주의적 복종에서는 심리적 폭력($r=.152, p<.001$), 언어적 폭력($r=.115, p<.01$), 금품갈취($r=.12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위주의적 공격성에서는 신체적 폭력($r=.081, p<.05$), 심리적 폭력($r=.169, p<.001$), 언어적 폭력($r=.142, p<.001$), 금품갈취($r=.09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 내성주의에서는 신체적 폭력($r=.088, p<.05$), 심리적 폭력($r=.157, p<.001$), 언어적 폭력($r=.150, p<.001$), 금품갈취($r=.11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에서는 심리적 폭력($r=.187, p<.001$), 언어적 폭력($r=.156, p<.001$), 금품갈취($r=.16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에서는 신체적 폭력($r=.101, p<.01$), 심리적 폭력($r=.185, p<.001$), 언어적 폭력($r=.171, p<.001$), 금품갈취($r=.10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파괴주의와 냉소주의에서는 신체적 폭력($r=.114, p<.01$), 심리적 폭력($r=.234, p<.001$), 언어적 폭력($r=.202, p<.001$), 금품갈취($r=.17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투사성에서는 심리적 폭력($r=.14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에서는 심리적 폭력($r=.09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결 론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녀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할 때 자신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다. 이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쳐 권위주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녀를 대할 때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 또한 권위주의 성향과 자신의 권위주의 수준을 비롯한 자기 이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환경 조성 및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준다. 즉 자녀가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폭력 경험이 많아지며,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모두 높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신체적 폭력 순이다. 피해 경험은 금품갈취가 가장 많았으며, 언어적 폭력, 괴롭힘,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이다. 이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억압이 경향이 높고, 외집단에 대하여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Meer, 1955; Korgan, 1956)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르나 학교폭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으로 권위주의 성격 소지자가 지니는 권력자나 권위자의 태도를 수용하고 보다 권위에 복종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파악할 때나 자신을 파악할 때 집단 분류도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민경환(1989)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에서 부모의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성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괴롭힘에서는 '권위주의적 복종', 금품갈취에서는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성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주의 하위요인 중 어떠한 변인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스스로 점검, 평가하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넷째,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은 높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부모의 훈육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양식을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간에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은 부모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반영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폭력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나라 가정 내의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자녀의 자긍심을 확대시켜 주기 위하여 가정 환경적 대책 마련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인성개발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및 학교사회복지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이고 다체계적인 개입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제 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따로 작성하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각하고 있는 권위주의 성향에 대한 상호관련성과 부와 모 쌍방의 지각차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제주시내 일부 중학교 학생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중학생의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집지역 인원을 확대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성별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하며 서로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만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적용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하위변인으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5가지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는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급변하는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 조사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동욱(1999).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 경찰청(2004). **범죄백서**.
- 경찰청(2006). **경찰백서**.
- 고성혜(2005). 유형별 통계결과에 나타난 학교폭력 실태, **교육개발** 32(5), 14-23.
- 구본용(1996).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육부.
- 권기성(1981). 지역사회 발전: 그 전망에 대한 문화심리적 검증, **학술논총** 제4집, 단국대학교 대학원.
- 권장환(1997). **학교폭력의 가정환경적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철(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권위성향과 폭력 경험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석(1984). **한국사회의 권위주의 의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1996). **교육환경과 학원폭력**, 조사연구.
- 김명자(2001).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0(2), 241-253.
- 김미영(2006). **학교체계가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200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 김선옥(198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태도와 좌절상황에서의 외벌적 공격 방향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하(1988). **한국공무원의 권위주의적 가치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운태(1982). **한국정치론**, 서울 : 전영사.
- 김재철(1986). **권위주의적 행정문화하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박경규(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6.
- 김종준(2003). **혼성학급 여부와 권위주의 태도가 중학생의 성차별 태도, 남녀 평등의식 및 여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소.
- 김해동(1978). 관료행태와 가족주의, **한국행정학보** 제12호.
- 김형방(1996). 학교폭력과 사회복지 대응방안, **사회복지 통권** 제131호, 한국사회복지협회.
- 김호진(1990).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 노충래·이신욱(2003). 중학교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학회지** 6호.
- 노호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기봉(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 민병근(1992). **청소년 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울산의대학술지.
- 박경아(2002).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옥(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애(1998). **추상정보와 범례정보의 반복적 사용이 사회적 집단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 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정은(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 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숙(2004). 중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의(1993). 가족학, 서울: 하우.
- 백완기(1982).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출판사.
- 서기채(200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장혁(2001). 피평가자의 범주정보와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향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정숙(1995). '교사효율성 훈련'이 중학생의 권위주의 성향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1999). 권위주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송미숙(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효섭(1998). 부모의 훈육방법을 통해서 본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관한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현(2003).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 사회사업적 개입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덕이(1986).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자녀의 사회화유형 인지양식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식(1997). 근절되어야 할 학교 내·외 폭력, 교육개발원.
- 유지향(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중(1997). 학원폭력의 사회 심리학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2호.
- 윤성근(2000). 중학생들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연계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현(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

- 향-인지적 성격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우곤(1973). 한국 관료의 행태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7집.
- 윤탈림(1986). **한국인**, 서울 : 현암신서.
- 이장현, 우룡(2001). 학교폭력의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 45-63.
- 이은정(2002).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해경험 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2005).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2000). **집단따돌림과 학교응집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 및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1992).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5권 3호.
- 장윤지(2005). **학교폭력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득환(1994). **법원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업무행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권상(1996). **공무원의 가치지향성과 권위주의적 행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채(1997). **학원폭력 및 놀이문화 공간에 대한 실태보고서**, 국회문화체육공부위원회.
- 정선경(1998).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석준(1992).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법문사.
- 최경호(2000). **중학생의 성별·학년별 및 가정환경 변인별 학교폭력경향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구(1994). 권위주의 성격에 대한 카리스마검사의 변별기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글학회(1994). **우리말 큰 사전**.
- 한승조(1976).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 홍금자(1997). 학교폭력과 학교 사회사업가의 개입-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학교사회사업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 황연정(1999). 아버지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Baumrind, D.(1969).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s control on the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6.
- Dillehay, Ronald. C.(1978). "Authoritarianism", *Dimensions of personality*, Harvey London & John E. Exner, Jr.(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Eliot, D. S., B. A. Hamberg & K. R. Williams.(1998).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 A New Perspectiv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on, L. D., Huesman, L. R., Dubow, E., Romanoff, R. & Yarmel, P. W.(1987). Aggression and its correlates over 22years, In D. Growell, I, Evans & C. O'Donnel(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Plenum Press.
- Gottfredson, M. R., & T.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t, C. H., Dewolf, M. D., Wozniak, P., & Burts, D. C.(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 Development*, 63, 879-892.
- Korgan, N.(1956). Authoritarianism and r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3.
- Meer, S. J.(1955). Authoritarian attitudes and dream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 Mussen, P. H.(1979).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Child*, New York: Prentice-hall.
- Olweus, D.(1992).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ropf(Eds).
- _____ (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_____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 Russell, A., & Russell, G.(1996). Positive Parenting and boy's and girl's misbehaviour during a home ob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291-308.
- Stanford, R. N.(1973).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contemporary perspective, In J. N. Knuston (E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 - Bass.
- Stephenson, P., & Smith, D.(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 & D. T. Lane(Eds.), *Bullying in School*, stock-on-Trent: Trentham Books.
- Tattum, D. P., & Herbert, G.(1993). *Countering Bullying : Initiatives in schools and local authorities*, Stoke-on-Tent : Tent Books.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CBS. 2006년 2월 10일자 기사.

제주일보. 2006년 7월 28일자 기사.

<http://www.jikim.net>

<http://www.police.go.kr>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on the Junior Middle Schooler's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Go, Ae-Ran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is research¹⁾ is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on their children's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paper focuses on the matters as follows:

Matter One : What difference exists in children's authoritarian propensity according to the propensity level of their parents for authoritarianism?

Matter Two : What difference exists in children's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propensity level of their parents?

Matter Three : What difference exists in children's subordinate factor in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ir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by subordinate factor level?

Matter Four : What relations exist between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and their children's school experience?

The research target for this was 6 junior high school students[Two boys' schools, two girls' schools, 2 co-ed schools] by selecting one class by/per school year. A total of 705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41 male students

1)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and 364 female students, among which a total of 66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urvey data from 320 copies from the male students and 349 from the female ones excepting 36 unfaithful respondents' questionnaires.

The measuring tool for surveying the authoritarian propensity of the parents whose children show habitual tardiness at school, was used supplemented questionnaire items suited for the junior high schooler's standard with the revision of some items done by Kim, Jong-joon in 2003 on the basis of the work done by Min, Kyeung-hwan[1989], who analyzed and adapted the only question items matched with Korean situation, among the obtained items from 9 subordinate factors proposed by Adorno[1950]. As for the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school violence, the questionnaire items directly written by Do, Ki-bong were used with reference to Lee, Chun-hwa and Lee, Kyeung-eun's questionnaire data.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on their children's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For this, SPSS for window 12.0k, Simple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f Reliability [Cronbach's coefficient], t-test,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pplied.

Research results obtained through these above analytical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when children highly perceive their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their children were proved to have also high authoritarian propensity, which aspects also proved that parents' authoritarian children-rearing attitude have effect on children's character attributes, ultimately playing a great role in forming children's authoritarian character.

Second,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also has effect on their children's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Likewise, In a community where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level is high, the involvement in school violence and children's experience in falling victim to such school violence are high. Among the experiences in inflicting school violence, verbal violence occurred most frequently; extortion of money and other articles is the most in inflicted experiences.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children's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subsequent to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level by subordinate factor. This means that a greater influence on school violence could be made, depending on the difference of children's perception level of their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Fourth, There exists a generally high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and their children's school viol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the higher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This aspect proves that children come to acquire an aggressive behavioral pattern from their parents' rearing process, and thus there is a deep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uthoritarian propensity and the experience in school violence.

Summing up the above-mentioned conclusions, there needs to be parents' consistent efforts to maintain more democratic and receptive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f parental authoritarian propensity on their children's authoritarian inclination; the youth also should consider the urgency of efforts to try to understand themselves including their authoritarian propensity and its level. In addition, to prevent school violence, each family had better spend a longer time conversing with their children and to prepare some family-environmental measures to strengthen children's pride; on the other hand the school authorities should set up and implement the program on human nature development, parents' training for their parental role, and school welfare system as soon as possible, and try to find out multilateral, multi-systematic intervention methods to reduce school violence.

부 록

<부록 1> 권위주의성향 검사	62
<부록 2> 학교폭력실태 조사	66



<부록1>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최근 날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설문지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학문적인 연구로만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 한 문항에 하나 이상을 답하시거나 빠뜨린 답이 많은 경우 설문지는 무효가 되므로 한 문항에 하나의 답만 작성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고 애 란 드림

학생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부록 1> 권위주의 성향 검사지

I. 다음 질문지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의견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느끼기에 부모님 의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란에 V표 하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그랬다	정말 그랬다
1	우리 부모님은 공상에 빠지기보다는 아무 일이라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2	우리 부모님은 파렴치범, 불량배, 걸인 등을 무슨 수를 써서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3	우리 부모님은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노력했다기보다는 배경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4	우리 부모님은 너무 친밀하게 대하면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우리 부모님은 TV에서 키스 장면 등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6	우리 부모님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력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7	우리 부모님은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8	우리 부모님은 사람들은 운명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9	우리 부모님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0	우리 부모님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1	우리 부모님은 여자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꼴사납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2	우리 부모님은 딸이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3	우리 부모님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만한 성취를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4	우리 부모님은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체 로 그렇지 않았다	대체 로 그랬다	정말 그랬다
15	우리 부모님은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16	우리 부모님은 관혼상제는 낭비를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17	우리 부모님은 사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18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사회에서 성문란은 가장 큰 도덕적 타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19	우리 부모님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잘해 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0	우리 부모님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궁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1	우리 부모님은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2	우리 부모님은 요즘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3	우리 부모님은 간통을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4	우리 부모님은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분명히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5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은 맞고 들어오는 자식보다 때리고 들어오는 아이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1	2	3	4
26	우리 부모님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7	우리 부모님은 경쟁에선 이기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8	우리 부모님은 실제로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29	우리 부모님은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30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십니다.	1	2	3	4
31	우리 부모님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32	우리 부모님은 회사에서윗사람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33	우리 부모님은 혼자 있게 되면 잡념이 생기게 되므로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34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35	우리 부모님은 명예에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1	2	3	4

II. 문항이 여러분 자신의 태도와 의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란에 V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그랬다	정말 그랬다
1	공상에 빠지기보다는 아무 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	1	2	3	4
2	과렴치범, 불량배, 걸인 등을 무슨 수를 써서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1	2	3	4
3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노력했다기보다는 배경이 좋았기 때문이다.	1	2	3	4
4	너무 친밀하게 대하면 업신여김을 받는다.	1	2	3	4
5	TV에서 키스 장면 등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1	2	3	4
6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력이다.	1	2	3	4
7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1	2	3	4
8	사람들은 운명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1	2	3	4
9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1	2	3	4
10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1	2	3	4
11	여자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꼴사납다.	1	2	3	4
12	딸이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2	3	4
13	사람의 가치는 얼마만한 성취를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다.	1	2	3	4
14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1	2	3	4
15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16	관혼상제는 낭비를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처리야 한다.	1	2	3	4
17	사회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1	2	3	4
18	우리 사회에서 성문란은 가장 큰 도덕적 타락이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그랬다	정말 그랬다
19	원래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잘해 주어도 소용이 없다.	1	2	3	4
20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궁합이 매우 중요하다.	1	2	3	4
21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	1	2	3	4
22	요즘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	2	3	4
23	간통을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1	2	3	4
24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분명이 나누어진다.	1	2	3	4
25	내 자식은 맞고 들어오는 자식보다 때리고 들어오는 아이로 만들겠다.	1	2	3	4
26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1	2	3	4
27	경쟁에선 이기고 볼 일이다.	1	2	3	4
28	실제로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1	2	3	4
29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	1	2	3	4
30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31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1	2	3	4
32	회사에서윗사람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회사원이다.	1	2	3	4
33	혼자 있게 되면 잡념이 생기게 되므로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1	2	3	4
34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1	2	3	4
35	명예에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1	2	3	4

<부록 2> 학교폭력실태 검사지

Ⅲ. 아래의 문항이 여러분이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횟수와 가장 가까운 숫자에
 V 하세요.

1.

번호	문항	한번도 없음	일년에 한번 정도	일년에 두세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세번 이상
1	나는 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때린 일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학생을 때려서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게 한 일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린 일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학생을 성적으로 놀린 일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웃은 일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학생에게 욕설 및 저주의 말을 한 일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학생에게 공연한 시비를 건 일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한 일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학생에게 나의 숙제를 시키거나 가방을 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학생에게 매점 심부름을 강요한 일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학생에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씨클에 가입하도록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한 일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학생의 돈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다른 학생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학생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일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나의 얼굴표정이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이 겁을 먹고 돈이나 물품을 준 것을 받은 일이 있다.	1	2	3	4	5

2.

번호	문항	한번도 없음	일년에 한번 정도	일년에 두세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세번 이상
1	나는 다른 학생에게 이유없이 맞은 일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학생에게 맞아서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일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학생에게 흥기로 위협받은 일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학생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일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학생에게 성적으로 놀림을 당한 일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학생에게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한 일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학생에게 욕설 및 저주의 말을 들은 일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학생에게 공연한 시비를 당한 일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일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학생의 숙제를 하거나 가방을 들어 준 적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학생에게 매점 심부름을 강요당한 일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학생에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씨클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학생에게 시험 답안지를 보여 준 적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학생에게 돈을 강제로 뺏긴 적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다른 학생에게 물건을 강제로 뺏긴 적이 있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다른 학생 얼굴표정이나 태도에 겁을 먹고 돈이나 물품을 준 적이 있다.	1	2	3	4	5